

국제캠 총학 10년만에 한대련 탈퇴 이념논리에 거부감, 학생들 등돌려

투표 끝에 한대련 탈퇴

이승연 기자 leesy0317@khu.ac.kr

지난 27일 총투표결과와 투표자 6,159명 중 5594명(69.6%)이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탈퇴’에 찬성했다. 2005년 한대련 출범부터 함께 한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생회(총학)가 10년만에 탈퇴하는 것이다. 일부 절차는 남았지만, 학생들이 ‘총투표’를 통해 내린 결론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다. 온라인의 해당 공지에는 ‘해냈다’라는 댓글들이 달리기도 했다. 한때 ‘대표적인’ 대학생 단체로 인정받은 한대련의 현재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출범 당시 한대련은 각 대학 총학생회가 중심이 돼 대학사회의 담론을 수렴하는 동시에, 조직적인 활동을 목표로 했다. ‘이념중심’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에 대한 문제 제기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한대련은 대학생의 ‘생활중심’ 활동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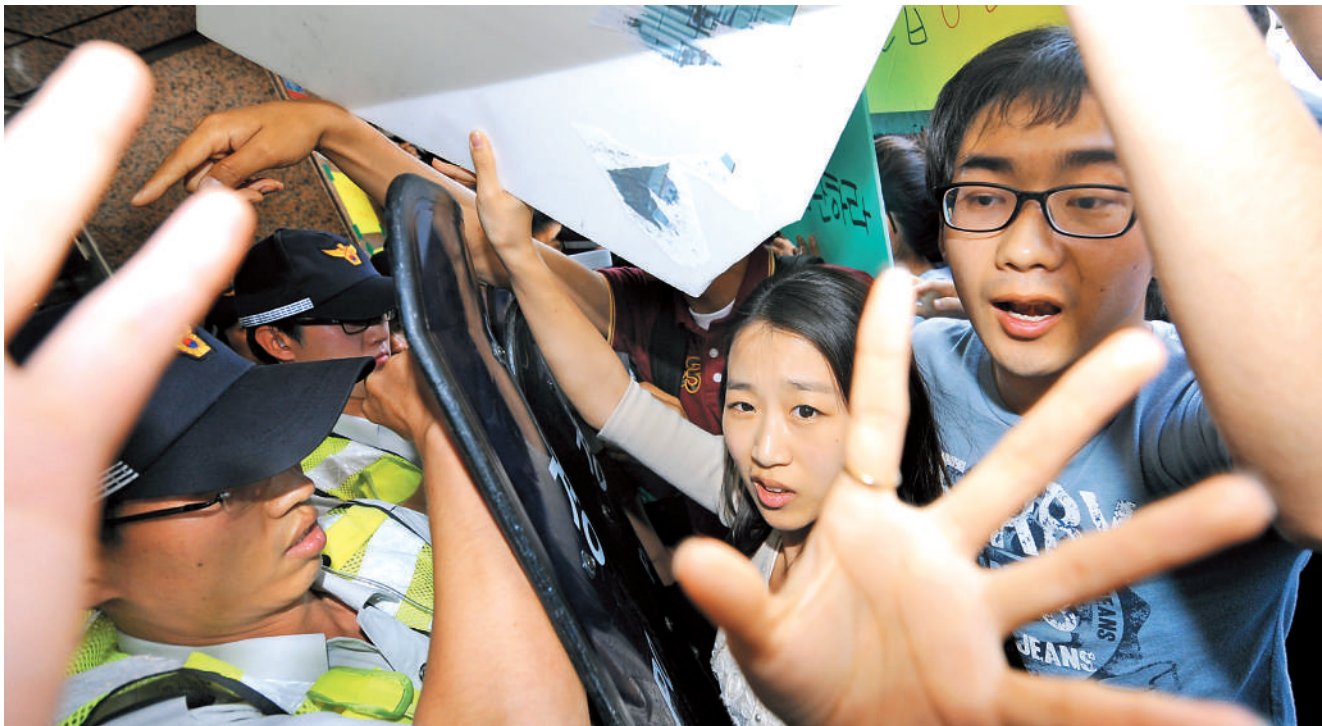
이후 등록금 문제, 고등교육의 구조적 문제 등을 지적했던 한대련은 이명박 정부 시절 등록금을 사회 문제로 이슈화시키면서 주목을 받는다. 특히 한대련의 ‘반값등록금’ 운동에 호응하는 대학이 늘어나면서, 한대련 자체가 대학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커졌다. 국제캠 총학은 2011년, 전국 60개 대학이 참가한 한대련 총회를 개최하고 2012년과 2013년 연속으로 한대련 의장을 배출하는 등 중추적인 위치에 서기도 했다.

‘반값 등록금’ 이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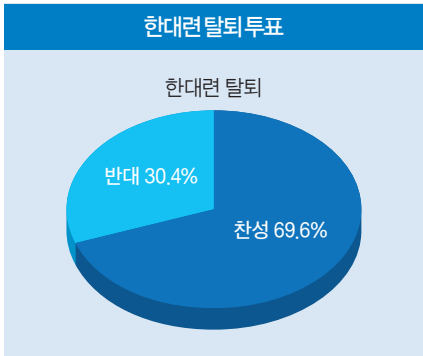
대표 학생 조직으로 부상

하지만 ‘반값등록금’ 이슈에 대해 정부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국가장학금 제도가 여러 가지 허점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안이나, 비판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한대련은 스스로 주도해온 ‘반값등록금’ 운동에서 그 동력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한대련은 학생 여론에 부합하지 못하는 정치 문제에 몰두하며 합리적이지 못한 운영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학생여론이 등을 돌린 대표적인 사건은 2011년 ‘고려대 새내기 콘서트 사건’이었다. 고려대에서 열리기



2012년 발생한 ‘통합진보당(통진당) 중앙위원회 폭력사태’는 한대련 반대 여론에 결정적이었다.



양위원회 회의에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지난 2월부터 총선을 대비해 통진당 청년 비례선출위원회에 공동위원장으로 참가해 왔기 때문에 그날도 회의에 참관하기 위해 있었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사건은 한대련에 대한 학생 여론을 돌리기에 충분했다. 한대련이 폭력으로 점철된 모습으로 기성 정치를 답습하고 있다는 의혹을 샀기 때문이다.(대학주보 1516호 (2012.05.21.))

통합진보당 폭력사태

한대련 반대 최고조

이런 과정에서 2013년 제45대 총학 김나래(기계공학 2008) 전 회장이 다시 한 번 한대련 의장을 맡으면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당시 김 회장은 “지난해까지 계속 성장해왔던 한대련이 일시적으로 힘들어졌다 하여 외면할 수 없었다”며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면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대학생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출마했다”고 그 이유를 말했지만, 학생들의 시선은 꺾이지 않았다. 특히 통합진보당에 대한 ‘중복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한대련에서 ‘키 리졸브 훈련 반대성명’을 내는 등의

활동 역시 학생여론과는 동떨어지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학교 국제캠 총학 홈페이지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총학생회는 학생들을 위한 학생회나, 아니면 정치꾼을 표방한 빨갱이냐?’라는 문구로 바뀌는 해킹 사건까지 발생하게 된다. (대학주보 1543호 (2013.05.27))

학생조직에 대한 논객으로 유명한 하이네(필명)는 한대련 몰락에 대해 “이념 논리에 갇혀버린 것도 문제였지만, 등록금 정국을 주도하면서 내부 역량을 소진한 것도 주요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결국 지난해 한대련 계열 총학으로 불리기도 했던 ‘Power’선본의 연임이 끝났다. ‘친KHU’ 선본은 학생여론을 고려해 선거기간 ‘한대련 탈퇴 여부 총투표 실시’를 전략적으로 내세웠고, 결국 당선-총투표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국제캠 총학은 한대련 탈퇴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다만 현재 대학가를 둘러싼 대학 구조개혁 등 이슈의 해결은 단일 대학 활동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하지만 김용석(화학공학 2009) 회장은 “단일 대학만으로도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타 대학들의 목소리와 함께 한다면, 대학구조개혁과 같은 대학관련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불안감을 일축했다.

투표율 50.3%
총투표 성사
선택지 편향 논란

국제캠 총학 총투표

이승연 기자 leesy0317@khu.ac.kr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총학)가 실시한 총투표가 연장투표 끝에 유권자 12,239명 중 6,159명, 투표율 50.3%로 성사됐다. 투표결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탈퇴 ▲법정부담금 교비납부 반대 ▲대학구조개혁평가 반대 ▲양 캠퍼스 차별 존재 등 재학생의 의견이 모아졌다.

가장 높은 관심을 모았던 ‘한대련 탈퇴’는 찬성 4,285표(69.6%), 반대 1,974표(30.4%)로 집계됐다. 한대련 규약 2장 회원 6조 (탈퇴) ②항에 따르면 ‘본회의 탈퇴는 각 학교 총학생회와 전국적인 부문계열 조직 단위의 의사결정기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가입결정을 내렸던 의사결정기구에 준하거나 상위 의사결정기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번에는 ‘총투표’를 통해 동의를 구한 것인데, 총투표는 총학 회칙에 ‘최고심의의결 투표’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탈퇴’가 확정된 셈이다.

한편 투표 안건 별 ‘선택지’가 적확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우선 등록금의 법정부담전입금 부담 여부를 묻는 안건2의 선택지는 “우리가 낸 등록금 우리에게 돌아와야 한다”와 “학교와 함께 고통분담 해야 한다”이다. 투표의 선택지가 상반되는 입장을 대표한다고 해도, 질문 자체의 편향성은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낸 등록금은 ‘우리에게’ 돌아와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감상적인 접근으로 답변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정당성을 묻는 안건3의 선택지 역시 “올바른 대학의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와 “대학평가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였다. 사실상 올바른 대학을 바라지 않는 학생이 없고, ‘현재의 대학평가’가 올바르지 않다’라고 이미 규정내린 상태의 질문지인 점이다. 윤지윤(스페인어학 2014) 양은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지였다”라며 “형식적인 투표 행위로 보였다”라고 말했다.

선택지 편향논란에 대해 김 회장은 “홍보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가정배달 신청 및 고객센터 1588-1539 www.maeil.com에서 저지방 우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만나고, direct.maeil.com에서 혜택이 가득한 가정배달 멤버십에도 가입하세요

2세부터 시작하는 온 가족 저지방 우유 매일우유 저지방 & 고칼슘 2%

매일 마시는 그 우유를
2% 저지방 우유로 바꾸면
아이의 성장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우유 속 지방은 반으로 줄이고 칼슘은 두 배 더 채웠습니다
영양밸런스는 맞추면서 우유의 고소한 맛은 살아있어요

매일, 우유의 힘
매일 저지방우유 2.1.0



Maeil
매일우유
저지방 & 고칼슘
2%
LOW FAT
1000 mL
(490 kcal, 100 kcal, 칼슘 440 mg / 1회 제공량 200 mL) 강화저지방우유